

【발표 3】



푸눅, 추수를 마무리하는 하파오 강 유역의 전통 줄다리기

노마 레스피시오 | 필리핀대학교 교수

1. 개요

푸눅(punnuk)이란 이푸가오 주 흥두안 지역 하파오 바랑가이(필리핀의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세 공동체가 행하는 줄다리기 의식을 말한다. 하파오 강 유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추수가 끝난 뒤 거행되는 전통 의식(huowah)의 대미를 장식한다. 푸눅은 농사 주기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식이다.

2. 전통 의식

(1) 바키와 이눔

푸눅에 앞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의식을 가리켜 바키(baki)와 이눔(inum)이라고 한다. 두 의식은 추수기에 지정된 종가(dumupag)에서 행한다. 두 의식은 같은 날 종가의 전통 가옥 1층에서 거행한다. 첫 번째 의식인 바키는 아침에 치른다. 바키는 점(占)을 치는 의식으로 3~5마리의 닭(돼지를 사용할 때도 있다)을 제물로 바친다. 의식은 마을의 사제(mumbaki)가 주관하며, 신들에게 추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현 세대에게 농지(특히 종가의 농지)를 물려준 조상들에게 감사의 예를 표한다(3~5세대에 걸친 이름 낭독). 마을 사제, 종가 및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점심으로 요리한 음식을 음복한다. 바키에 이어 술을 음복하는 두 번째 의식 이눔을 치른다. 종가는 서로 다른 크기의 세 단지를 내어 놓는다. 단지에는 종가에서 빚은 술(bayah)이 담겨 있다. 마을 사제는 3~5세대에

걸친 조상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술을 조상에게 바친다. 술 단지를 여는 특권은 마을 사제에게 있으며, 세 단지 중 가장 큰 단지(binouwangan)부터 술을 음복해야 한다. 가장 큰 단지의 크기는 약 76cm 정도 된다. 그 다음으로 중간 크기의 단지(dinoaman)의 술을 음복하고, 마지막으로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가장 작은 단지(guling)의 술을 마신다. 셋 중 가장 작은 단지에 가장 맛 좋은 술이 담겨 있다.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가장 큰 단지의 술만 음복한다. 종갓집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잔치 소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밤까지 계속되는 주연에 참석하라는 의미로 간주된다.

(2) 푸눅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의식이 바로 푸눅이다. 바키와 이눔이 끝난 다음날 치른다. 세 곳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를 말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주로 연령에 관계 없이 신체 건장한 남자들이 강에서 줄다리를 벌였고, 여자들은 강둑까지 이어지는 행렬에 참여했다. 강둑에 모인 관중들은 마을을 대표해 참여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상대팀 구성원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신경전을 벌인다.

도구 : 티나구와 파키드

푸눅은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된다. 티나구(tinaggu)와 파키드(pakid)가 그것이다. 티나구는 벼 이삭으로 만들며 덩굴로 단단히 묶는다. 이 도구는 허수아비를 닮았으나 왕도마뱀이나 원숭이를 닮은 모양도 있다. 강 한가운데에 던져 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두 팀이 당겨야 하는 물체이다. 각 팀은 3~5m 정도 되는 나뭇가지인 파키드를 사용하여 티나구를 자기 편 쪽으로 당긴다. 파키드는 내구성이 탁월한 아토바 나무의 가지로 만든다. 파키드의 한 쪽 끝은 갈고리처럼 생겨 티나구에 걸어 잡아당길 수 있다. 파키드를 티나구에 걸면 그 때 양팀의 줄다리가 시작된다. 먼저 티나구를 자기 편 쪽으로 당긴 팀이 승리한다.

티나구 제작은 푸눅을 행하는 아침,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계단식 논둑을 내려가 줄다리를 벌이는 강가로 행진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다. 반면 파키드는 푸눅을 하기 며칠 전에 준비한다. 파키드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주로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자라 채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티나구와 파키드는 모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남자들이 준비한다. 여분의 티나구와 파키드를 준비하여 줄다리가 펼쳐지는 강가에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무승부이거나 승패를 가리기 위해 다시 경기를 해야 할 경우, 또는 파키드가 망가질 경우 곧바로 교체할 수 있다.

3. 배경

(1) 지리적/물리적 배경

홍두안(Hungduan)은 북서쪽으로 마운틴 주, 남서쪽으로 벵게트 주와 인접한 이푸가오 주에 위치한 도시이다. 홍두안 시를 구성하는 9개의 바랑가이 중 하파오 프로퍼(Hapao Proper), 농울루난(Nungulunan), 반가-안(Banga-an) 세 곳 만이 푸눅을 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 바랑가이는 홍두안의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방대한 계단식 논으로 유명하다. 전체 지형은 넓게 펼쳐진 분지로 남쪽은 넓고 완만하게 경사가 진 반면 서쪽과 남서쪽 면은 경사가 가파르다. 하파오 강은 이 지역의 한 가운데를 관통한다. 강물은 표면이 매끄러운 바위 틈 사이로 흐르며, 알라위탄 산과 플리스 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급류와 카필리간 산에서 흘러나오는 지류가 합쳐져 강을 이룬다.

(2) 인구 구성과 주요 경제 활동

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홍두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투알리 민족-언어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벼농사를 지어 왔다. 돌로 만들어진 계단식 논은 강인하고 성실한 주민들을 성정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바키와 이눔, 푸눅과 같은 전통 의례는 모두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무형유산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 주기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 품종(pinung-o)에 맞춰 형성되었다. 보통 10월 또는 11월 초에 파종이 이루어지고, 12월 초 묘판에서 발아한 묘목을 옮겨 심기 전에 논을 가꾼다. 5월까지 벼는 열매를 맺어 황금색이 될 때까지 여물고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추수가 시작된다.

(3) 사회 구조

사회는 계층화되어 있다. 상류층은 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규모가 큰 계단식 논을 소유한 부유층(kadangyan)을 말한다. 농사철이 되면 이들 계층이 소유한 논에 가장 먼저 일손이 투입된다. 상류층 가운데 종가(dumupag)로 지정된 집안이 농사 및 추수 후에 치르는 의례 관련 활동을 총괄한다. 종가는 소유한 논 규모와 과거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마을 사제와 원로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종가는 반드시 규모나 수의 측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계단식 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논을 소유한 상류층 출신이어야 한다. 종가가 되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특권을 행사하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논에서 먼저 추수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가의 논에서 추수가 모두 끝나야 두 번째로 많은 논을 소유한 집안(umuonub)의 추수 작업이 시작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논을 소유한 집안(mikatuo)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논을 소유한 집안(makap-at)의 추수가 시작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추수는 공동체 구성원과 각 논을 소유한 집안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공동 작업이다. 추수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루 일당으로 다섯 가마니의 쌀을 받는다. 네 번째 집안의 추수가 끝나고 나서야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부들이 추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들 농지는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일손 없이 소유주가 직접 추수한다.

4. 푸눅의 실행

(1) 공동체 참여: 다채롭고 흥겨운 축제

오전 9시 무렵 푸눅에 참여하는 세 공동체 구성원들은 계단식 논을 지나 하파오 강 쪽으로 행진한다. 그들이 입은 붉은색 전통의상은 주변의 녹음과 대비되어 한층 더 강렬한 느낌을 준다. 신을 매혹한다고 여겨지는 동아(dong-a) 나무의 붉은색 잎은 머리 장식으로 사용된다. 티나구와 파키드를 든 장정들은 연신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흔들며 댄스. 한편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푸눅 참가자들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외쳐대는 고함 소리에 맞춰 동아 가지를 흔든다.

(2) 신의 가호를 빌다

응원의 함성과 상대편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꽃 튀는 공방전은 선수들이 강둑에 다다를 무렵 절정에 달한다. 먼저 정해진 장소에 당도한 두 팀이 줄다리기를 벌인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 양팀 선수 중 한 명이 나와 신의 가호를 비는 사행시를 읊는다. 하늘의 신(Daya), 바다의 신(Laud) 그리고 대지의 신(Bago)에게 무사히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뒤이어 풍작과 행운이 그들에게 깃들기를 기원하는 또 다른 사행시를 상대팀 참가자 중 한 명이 읊는다.

(3) 줄다리기 경기

시 낭독이 끝나고 양팀 중 한 팀이 티나구를 강 한 가운데에 던지면 선수들은 순식간에 파키드를 뺏어 티나구에 걸고 당길 준비를 한다. 이로써 줄다리가 시작된다. 양팀이 계속 파키드를 당기는 동안 강둑에 모인 관중들은 열화와 같은 응원의 함성을 보내며 자기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합심하여 더 큰 힘으로 당긴 팀은 티나구를 자기 편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 당길 수 있으며, 이 때 상대편까지 같이 끌려올 수도 있다. 티나구를 가까이 끌어 당긴 팀이 승리를 차지하며 나머지 팀과 다음 시합에서 겨루게 된다. 파키드를

걸고 당길 여분의 티나구가 있고 선수들이 모두 지칠 때까지 도전은 계속될 수 있다.

(4) 승자와 패자

줄다리기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전체 경기의 승자가 된다. 이는 푸눅에서 뿐만 아니라 수확기 내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허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간 패자들은 수확한 곡식을 금방 소비하여 다음 추수기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낙담한다. 반면 승자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자신감이 넘친다. 다음 해는 풍요로운 해가 되고 그들의 곡식 창고는 매번 채워 넣지 않아도 항상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수확과 관련된 전통 의식과 그 의미 : 바키, 이눔, 푸눅

- 종교적 의미 바키와 이눔이라는 의식,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동체에 게 신의 가호가 내리길 기원하는 시 낭독
- 주연과 축제 이눔 의식, 계단식 논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렬, 줄다리기 시합에서의 응원
- 스포츠 정신 줄다리기의 승자와 패자
- 공동체의 협동심과 효율성 신속한 티나구 제작, 파키드 채취, 푸눅의 실행, ‘Hagioh’ 라는 후렴구가 들어간 노래에 맞춰 계단식 논을 따라 내려가는 행진, 관중들이 한목 소리로 내는 응원의 합성, 서로 합심하여 줄을 당기는 모습
- 철저한 금기사항 엄수 추수 기간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은 잎이 무성한 채소, 껍질이 무른 조개류 및 생선을 피한다. 추수 의식이 거행되는 기간 동안 종가와 마을 사제 들은 목욕을 금한다. 잎이 무성한 채소는 상서롭지 못한 음식으로 간주되는데,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른 껍질의 조개류를 피하는 이유는 쉽게 껍질이 깨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수확한 곡식들이 쉽게 고갈되거나 파괴될 것이라는 미신과 관련이 있다. 생선 냄새는 신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피한다. 콩과 같은 꼬투리 식물은 제례 음식으로 올릴 수 있다. 콩의 경우, 익히면 부피가 늘기 때문에 수확의 양을 배로 만드는 것과 같은 뜻으로 간주된다.
- 체계적인 농번기 노동 공유 수확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확한 곡식의 손상을 막는다.
- 전통 수호에 대한 인식 고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전통 수호를 위해 노력한다. 마을 사제, 원로, 상류층 및 종갓집 구성원들은 바키, 이눔, 푸눅과 같은 종교적 의식을 지속적으로 거행하는 등 농업과 관련된 공동체 전통의 수호와

실행에 힘쓴다. 지속적인 의식의 실행은 젊은 세대로의 전통 전승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 **지자체와 바랑가이의 관료들(시장, 기초단체장, 관광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등)은 전통 놀이와 의식을 보존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 줄다리기인 푸눅이 사라지거나, 상품화되거나, 터무니없는 간섭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단순한 구경거리 또는 관광객들을 위한 놀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관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화학 제초제와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외래 벼 품종의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하지 않은 외래 품종들은 푸눅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본 보고서는 다음에 제시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인터뷰는 2013년 3월 16~17일 이푸가오 주 흥두안 시 하파오 센트로에서 진행되었다.

마을 원로

루치오 아담(Lucio Adamme), 80세, 바양 바랑가이 거주

로메오 보디온(Romeo Bodhion), 82세, 바양 바랑가이 거주

페드로 망-오한(Pedro Mang-ohan), 60세, 농울루난 바랑가이 거주

마을 사제

반다우 아톨바(Bandaw Atolba), 90세, 팡아안 하파오 바랑가이 거주

로사 아톨바(Rosa Atolba), 사제 반아우 아톨바의 아내, 팡아안 하파오 거주

마을 원로 겸 사제

안토니오 부망아방(Antonio Bumangabang), 79세, 하파오 프로퍼 바랑가이 거주

가노 나파다완(Gano Napadawan), 84세, 하파오 바랑가이 거주

빅토르 멜롱 마둘라우(Victor Melong Madulaw), 78세, 하파오 바랑가이 거주

종가

엘레나 팡이완 오야미(Elena Pangiwan Oyammi), 62세

호세 오야미(Jose Oyammi), 종가의 남편, 61세

상속 농지 관리인

모나리자 비무약과 그녀의 남편 레이 비무약

지자체 공무원

라몬 가야당(Ramon Gayadang), 49세, 하파오 프로퍼 바랑가이 단체장

조셉 나카케(Joseph Nakake), 59세, 전 하파오 프로퍼 의장, 마을 사제

로웨나 시캣(Rowena Sicat), 38세, 흥두안 시 관광 사무관

**필자는 추수 및 의식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렀으며, 1976년 하파오에 머무는 동안 푸눅의 연행을 일부 관찰했다.

참고문헌

바톤 R.F. (1955). 『이푸가오의 신화 The Mythology of the Ifugaos』, 미국민속협회 회고록 Vol.46, 필라델피아.

베이어 H.O. (1955). 「필리핀 계단식 논 의 기원과 역사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Philippine Rice Terraces」, 제 8 회 태평양과학학술대회 회의록, 1953, 필리핀 국립연구원.

콘클린 H. (1980). 『이푸가오의 민족지학 지도 Ethnographic Atlas of Ifugao』, 뉴헤이븐 앤드 런던, 예일대학교 출판부

둘라완 M. (1997). 「이푸가오 소수 민족-언어 집단의 민족지학적 분포 An Ethnographic Mapping of the Ifugao Ethno-linguistic Sub-groups」,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연구보고서, 마닐라.

두미아. M. (1979). 『이푸가오 세계 The Ifugao World』, 뉴데이 출판사

제니스타 F. L. (1987). 『순백의 아포스, 센트럴 산맥 위의 미국 주지사들 The White Apos, American Governors on the Cordillera Central』, 뉴데이 출판사

키싱 F. (1962). 『북부 루존의 민족 역사 The Ethnohistory of Northern Luzon』,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 출판부

램브레히트 F. (1929). 『이푸가오의 마을과 집 The Ifugao Villages and Houses』, 워싱턴 D.C., 가톨릭인류학학회 간행물

셈퍼 D. 외 (1975). 『코르딜렐라 산맥의 독일 여행객들 German Travelers of the Cordillera』 (1860~1890), 마닐라, 필리피니아나 북길드